또래집단괴롭힘 스트레스에 대한 피해 아동의 대처전략 유형들과 그에 따른 외로움의 완화효과*

Children's Coping Strategies and Loneliness in Peer Victimization*

김정민(Jung Min Kim)[1)]

ABSTRACT

The present research studied children's coping strategies by age, sex, and frequency of victimization and examined the relationship of coping strategies to loneliness in peer victimization. Participants were 434 children from the 3rd to 6th grades of an urban elementary school. Self-report data indicated seven types of coping strategies : cognitive distancing, adult support seeking, peer support seeking, negative problem solving, positive problem solving,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With increasing age, children used less adult support seeking and more positive problem solving. While girls used more adult and peer support seeking, boys employed more externalizing and negative problem solving. Children with higher victimization frequencies were more likely to use negative problem solving and internalization. Lack of strategies for seeking social support was associated with loneliness.

Key Words : 또래집단괴롭힘(peer victimization), 대처전략(coping strategy), 학년차(grade difference), 성차(gender difference), 피해 경험(victimization), 외로움(loneliness).

Ⅰ. 서 론

아동 및 청소년기의 또래관계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핵심 요소로 아동의 성장, 발달 및 적응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최근 학교폭력 현상에 대한 사회적인 우려가 확산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또래집단괴롭힘은 부모, 교사, 아동상담사에게 주요한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Juvonen & Graham, 2001). 또래집단괴롭힘은 그 조작적 정의가 가장 포괄적인 것으로서 부정적 또래관계의 다양한 특징들을 탐색하기가 용이하다(Juvonen & Graham, 2001; Olweus, 1995). 또래집단괴롭힘은 학교 폭력의 한 형태로 동일 집단 내에서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구성원들이 한 특정 구성원에

* 이 논문은 2004년도 명지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명지대학교 아동학과 조교수

Corresponding Author : Jung Min Kim,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and Education, Myongji University, 50-3 Namgajwadong, Seodaemungu, Seoul 120-728, Korea E-mail:jmkim122@mju.ac.kr

게 신체적, 언어적 혹은 소외시키기 등의 간접적인 심리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로 정의된다(Crick, 1996; Olweus, 1993). 또래집단괴롭힘의 피해 아동들은 종종 외로움(Cassidy & Asher, 1992; Kochenderfer & Ladd, 1996a, 1996b, 2001), 불안과 아동기 우울증(Hawker & Boulton, 2000; Olweus, 1992; Slee, 1994), 학교무단결석과 중퇴(Boulton & Underwood, 1992; Reid, 1989) 등의 심각한 심리적 장애를 겪는다.

또래집단괴롭힘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또래집단괴롭힘의 실태 파악이나 가해 및 피해 아동의 사회심리적 특성과 예측 변인들을 밝히는데 초점을 맞추어 왔다(김교헌 · 왕소정, 2000; 김용태 · 박한샘, 1997; 박경숙 · 손희권 · 송혜정, 1998; 이춘재 · 곽금주, 2000; 최윤자 · 김아영, 2003; 최윤정 · 진혜경 · 김종원, 2001; 최은숙 · 채준호, 2000; Camodeca 등, 2002; Egan & Perry, 1998; Grills & Ollendick, 2002; Olweus, 1995; Schwartz, Proctor & Chien, 2001; Storch 등, 2002; Warman & Cohen, 2000). 그러나 또래집단괴롭힘이라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피해 아동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즉 어떤 특정 대처전략들을 사용하며, 또한 그러한 대처전략들이 피해 아동의 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Kochenderfer-Ladd와 Skinner(2002)의 연구가 유일하게 또래집단괴롭힘에 대처하는 아동의 전략들을 다루었는데 전략유형들로는 문제해결, 사회적 지지찾기, 인지적 거리두기, 감정의 내면화, 감정의 표출화가 나타났다. 국내에서 수행된 선행연구로는 김정민(2004a, 2004b)이 또래집단괴롭힘에 대처하는 국내 피해 아동의 전략유형들로서 긍정적 문제해결, 부정적 문제해결, 성인 지지찾기, 또래 지지찾기, 인지적 거리두기, 감정의 내면화, 감정의 표출화를 보고하였다. 그러나 Kochenderfer-Ladd와 Skinner(2002)의 연구에서 대상 아동의 연령이 9, 10세로 국한되었으며, 김정민(2004a, 2004b)의 연구 역시 대상 아동의 연령을 초등학교 5, 6학년생들로 제한하고 있어 연령에 따른 대처전략 유형의 발달적 변화를 이해하는 데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피해 아동의 대처전략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되는 성, 피해 경험과 같은 다른 요인들에 관해서도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또한 또래집단괴롭힘 스트레스라는 특정 상황에서 피해 아동의 대처전략 유형에 따라 피해 아동의 부적응이 어떤 영향을 받는 지에 관한 연구도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3, 4, 5, 6학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첫째, 또래집단괴롭힘에 대한 피해 아동의 대처전략 유형을 파악하고, 피해 아동의 학년, 성, 피해 경험에 따른 대처전략의 차이를 조사하는 것이며, 둘째, 이러한 대처전략 유형에 따라 피해 아동이 느끼는 외로움이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를 알아보는 것이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에 기초하여, 또래집단괴롭힘 상황에서의 대처전략 유형들에 대한 가설들을 유추하였다(김정민, 2004a, 2004b; Kochenderfer-Ladd & Skinner, 2002). 또래집단괴롭힘과 그에 대한 대처 패러다임은 크게 접근과 회피 유형으로 분류되며, 이는 일반적인 스트레스 상황과 대처에 관한 문헌 연구와 일치한다(Aldwin, 1994; Causey & Dubow, 1992; Roth & Cohen, 1986).

접근유형은 스트레스 상황을 통제하려는 개인의 직접적인 시도를 포함한다. 예를 들면, 문제해결 전략이나 사회적 지지찾기 전략은 스트레스를 주는 대상이나 상황을 개인이 인지적 또는 행동적으로 직면해야 하기 때문에 접근유형으로 분류된다(Fields & Prinz, 1997; Lazarus, 1994). 그러나 문제해결 전략은 개인 스스로가 행동을 결정하고 문제를 다루어 나가는 행위의

독립성을 띠는 반면, 사회적 지지찾기 전략은 문제를 다루어 나가는 과정 가운데 타인을 포함시킨다는 면에서 구별된다. 한편, 회피유형은 스트레스에 대한 개인 자신의 인지적 혹은 감정적 반응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Fields & Prinz, 1997; Lazarus, 1994) 구체적으로는 인지적 거리두기 전략, 감정의 내면화 전략, 감정의 표출화 전략이 있다(Causey & Dubow, 1992). 인지적 거리두기 전략은 스트레스 상황을 인지적으로 재구성하여 '그건 별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거나, 무시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지내는 것'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처리하는 것이다. 또한 감정의 내면화 전략은 내면의 감정적 반응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걱정하기' 또는 '스트레스 상황의 원인을 자기 탓으로 돌리기' 등을 포함한다. 감정의 표출화 전략은 내면의 부정적인 감정을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대상이 아닌 타인이나 사물에게 표출시키거나, 혹은 대상 없이 감정을 발산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대처전략의 접근 유형과 회피 유형을 기초로 하여, 일반적 스트레스 상황에서 개인의 대처전략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크게 개인적 요인들과 상황적 요인들로 나뉜다(Aldwin, 1994; Wiebe & Smith, 1997). 개인적 요인들로는 개인의 연령이나 성 등이 있으며, 상황적 요인들로는 스트레스 체험의 강도, 지속기간, 빈도 등과 같은 것들이 있다. 한편 스트레스 극복에 관한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스트레스 상황에서 어떠한 대처전략을 사용하였는지에 따라 개인이 경험하는 부적응은 크게 영향을 받는다(Fields & Prinz, 1997; Graham & Juvonen, 2001; Kochenderfer & Ladd, 1997; Lazarus & Folkman, 1984; Smith, Shu & Madsen, 2001). 즉 개인이 그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며, 공격적인 행위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또 그가 경험하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등에 따라 부적응이 일어날 위험성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또래집단괴롭힘이라는 특정 스트레스 상황에서 피해 아동의 대처전략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조사하고자 할 뿐 아니라, 피해아동의 대처전략 유형에 따라 아동이 경험하는 부적응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또래집단괴롭힘이라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피해 아동이 겪게 되는 부적응들 중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은 피해 아동이 느끼는 외로움이다(Fields & Prinz, 1997; Kochenderfer & Ladd, 1997; Smith, Shu & Madsen, 2001). 따라서 본 연구는 피해 아동의 대처전략 유형과 아동이 느끼는 외로움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에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또래집단괴롭힘 상황에서 피해 아동들이 사용하는 대처전략 유형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피해 아동의 학년, 성, 피해 경험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2> 대처전략 유형들에 따라 피해 아동이 느끼는 외로움에는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근교 공립 초등학교 2개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교 3, 4, 5, 6학년생 총 434명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의 학년별, 성별 분포는 3학년 101명(남 : 50, 여 : 51), 4학년 102

명(남 : 51, 여 : 51), 5학년 115명(남 : 58, 여 : 57), 6학년 116명(남 : 57, 여 : 59)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학년별 평균연령은 다음과 같다 : 3학년(8.3세), 4학년(9.6세), 5학년(10.7세), 6학년(11.5세).

2. 연구도구

1) 또래집단괴롭힘 피해 경험 척도

또래집단괴롭힘 피해 경험 척도는 또래집단괴롭힘의 조작적 정의에 근거하는 6개의 행동 항목들로 이루어져 있다(이춘재 · 곽금주, 2000). 구체적인 하위 항목은 (1)욕이나 심한 놀림을 당하기, (2)고의로 끼워주지 않거나 무시를 당하기, (3)맞거나 발로 차이거나 위협당하기, (4)헛소문으로 친구들이 나를 싫어하게 만들기, (5)돈이나 물건을 빼앗기기, (6)나의 신체적 특징이나 외모에 대해 험한 욕을 하기 등 6개 항목이며 5점 척도(1=그런 적이 한번도 없다 2=그런 적이 거의 없다 3=때때로 그런 적이 있다 4=자주 그런 적이 있다 5=아주 자주 그런 적이 있다)에서 평정하게 하였다. 또래집단괴롭힘 피해 경험이 전혀 없는 아동들은 위의 6개 행동 항목 모두에 그런 적이 한번도 없다(1점)에 반응하게 되므로 이들의 피해 총점은 6점이 된다. 피해 총점이 7점 이상인 아동은 또래집단괴롭힘 피해 경험이 있었던 아동이며, 점수가 높아질수록 피해 경험이 많은 것을 나타낸다.

2) 대처전략 유형 척도

또래집단괴롭힘에 대한 피해 아동의 대처전략 유형들을 평가하기 위해 Causey와 Dubow(1992)의 자기 보고식 대처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들의 척도는 학령기 아동의 또래 간 갈등 상황에서의 스트레스 대처전략을 다룬 것으로, 본 연구의 또래집단괴롭힘 상황에 맞추어 “만약 학교에서 다른 아이들이 나를 괴롭힌다면(예 : 욕을 하거나, 때리거나, 밀거나 등등), 나는 ___할 것이다”라는 형식으로 수정한 2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1>. 또래집단괴롭힘 피해 경험이 있는 아동들은 5점 척도(1=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다 2=거의 그렇지 않을 것이다 3=때때로 그럴 것이다 4=대부분 그럴 것이다 5=항상 그럴 것이다)에서 평정하게 하였다. 대처전략 유형의 세부문항들을 영역별로 분류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척도의 각 요인별 신뢰도 계수들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3) 외로움 및 사회적 불만족 척도

또래집단괴롭힘 피해 경험으로 인한 아동의 사회적 부적응을 측정하기 위하여 Cassidy와 Asher (1992)의 외로움 및 사회적 불만족 질문지(Loneliness and Social Dissatisfaction Questionnaire)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질문지는 외로움에 관한 문항들만 선택하여 총 24문항 중 7개의 허구 문항을 뺀 17문항이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되었다. 각 문항에 대해 5점 척도(1=절대 그렇지 않다, 2=거의 그렇지 않다, 3=때때로 그렇다, 4=대부분 그렇다, 5=항상 그렇다)로 구성되었으며, 신뢰도 검증 결과 Cronbach의 α는 .97이었다.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또래집단괴롭힘 피해 경험 척도, 대처전략 유형 척도, 외로움 및 사회적 불만족 척도의 문항들로 구성된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질문지 응답은 자율학습시간에 공동 연구원들에 의해 학급단위로 실시되었고, 질문지 작성 시간은 약 30～35분이 소요되었다. 질문지를 작성하기 전에 아동들이 5점 척도를 사용하는 것이 익

숙해지도록 본 연구의 주제와 연관이 없는 항목으로 연습해 보았다(예 : "부모님께서는 나에게 용돈을 주신다"). 또한 아동이 작성한 질문지의 내용은 연구자를 제외하고는 공개되지 않음을 명시하였다.

4. 자료 분석

첫째, 학년과 성별에 따른 또래집단괴롭힘 피해 경험 점수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χ^2 검증)을 실시하였다. 둘째, 대처전략 유형의 세부문항들을 영역별로 분류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학년과 성별에 따른 대처전략 유형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각 일원변량분석과 t검증을 실시하였다. 넷째, 또래집단괴롭힘 피해 경험 점수와 대처전략 유형과의 관계, 대처전략 유형과 외로움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위의 모든 통계분석은 SPSS 10.0 WINDOWS를 사용하였고 95% 신뢰수준에서 검증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또래집단괴롭힘 피해 경험

질문지 실시를 기점으로 지난 6개월 동안의 또래집단괴롭힘 피해 경험 점수(총 6문항)를 합산하여 총점이 6점이면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 7점 이상이면 '한 번 이상 있다'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 또래집단괴롭힘을 경험한 적이 한 번 이상 있는 경우는 총 434명 중 341명(78.6%)으로 많은 아동들이 집단괴롭힘을 한 번 이상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남자 아동의 83.0%, 여자 아동의 73.8%가 집단괴롭힘을 한 번 이상 경험한 것으로 나와 남자 아동의 피해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χ^2=5.48, p<.05).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또래집단괴롭힘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아동들은 제외하였다.

2. 대처전략 유형

1) 대처전략 유형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대처전략 유형 척도의 각 항목별 측정치들이 어떤 공통된 요인들을 추출할 수 있는 가를 알아보기 위해 주성분 요인분석과 베리맥스 회전법을 실시하여 고유치(eigenvalue)가 1.0 이상인 요인 7개를 도출하였다. 대처전략 유형에 관한 26문항의 요인적재량은 <표 1>에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일곱 개의 대처전략 유형들은 인지적 거리두기, 성인 지지찾기, 또래 지지찾기, 긍정적 문제해결, 부정적 문제해결, 감정의 내면화, 감정의 표출화로 나타났다. 인지적 거리두기 전략은 피해 아동이 스트레스 상황을 사실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상황 자체를 무시하거나(예 :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잊어버리려고 함) 상황의 의미를 축소시켜 해석함으로써(예 : 별 문제가 아니라고 자신에게 말함) 스트레스 상황으로 인한 부정적 감정들을 없애려는 시도이다. 성인 지지찾기 전략은 스트레스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피해 아동이 직접 외부로부터의 지지를 요청하는 것으로, 특히 부모나 교사를 대상으로 상황 설명하기, 조언 구하기, 부모나 교사의 직접적인 개입과 도움 요청하기 등을 포함한다. 한편, 또래 지지찾기 전략은 그 대상이 또래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피해 아동은 자신의 친구에게 일어난 일을 말하거나, 자신의 기분을

〈표 1〉 대처전략 유형 각 항목의 요인 적재량

문 항	요 인[1]						
	I	II	III	IV	V	VI	VII
인지적 거리두기 (α=.98; λ=5.47)							
별 문제가 아니라고 내 자신에게 말할 것이다.	.94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지낼 것이다.	.94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잊어버리려고 할 것이다.	.93						
그 일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92						
상관없다고 내 자신에게 말할 것이다.	.94						
그냥 덮어두고 지나 갈 것이다.	.94						
성인 지지찾기 (α=.96; λ=5.18)							
부모님께 어떻게 좀 해 달라고 요청할 것이다.		.85					
부모님께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어 볼 것이다.		.84					
선생님께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어 볼 것이다.		.90					
부모님께 일어난 일을 말씀드릴 것이다.		.82					
선생님께 일어난 일을 말씀드릴 것이다.		.90					
선생님께 어떻게 해 줄 것을 요청할 것이다.		.91					
또래 지지찾기 (α=.95; λ=3.36)							
친구에게 내 기분이 어떤지 이야기 할 것이다.			.88				
친구에게 어떻게 좀 해보라고 할 것이다.			.84				
친구에게 아이들을 혼내 주는데 도와달라고 할 것이다.			.85				
친구에게 일어난 그 일을 말할 것이다.			.85				
부정적 문제해결 (α=.99; λ=2.92)							
그 아이들에게 복수하려고 생각할 것이다.				.96			
그 아이들에게 나쁜 일이 생기도록 할 것이다.				.95			
그 아이들을 혼내 줄 것이다.				.96			
긍정적 문제해결 (α=.80; λ=2.16)							
그 아이들이 나를 괴롭히는 이유를 알려고 애쓸 것이다.					.84		
그 아이들에게 괴롭히는 것을 그만하라고 말할 것이다.					.76		
그 아이들과 잘 지내려고 노력할 것이다.					.87		
감정의 내면화 (α=.96; λ=1.98)							
내가 뭔가 괴롭힘을 당할 일을 했다고 나 자신을 탓할 것이다.						.99	
나 자신이 불쌍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99	
감정의 표출화 (α=.99; λ=1.96)							
스트레스를 풀기위해 뭔가를 때릴 것이다.							.97
스트레스가 풀리도록 큰 소리를 지를 것이다.							.97

[1]요인 Ⅰ, Ⅱ, Ⅲ, Ⅳ, Ⅴ, Ⅵ, Ⅶ의 각 설명변량은 21.0%, 19.9%, 12.9%, 11.2%, 8.3%, 7.6%, 7.5% 임.

털어놓거나, 직접적인 개입과 도움을 요구한다. 문제해결 전략은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이나 대상을 변화시키려는 피해 아동의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시도로 스트레스를 야기시키는 상황이나 대상을 인지적 또는 행동적으로 직면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부정적 문제해결 전략의 경우, 문제해결의 시도가 사회적 규준(norm)에 비추어 볼 때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가리키며(예 : 그 아이들에게 복수하려고 생각함), 긍정적 문제해결 전략의 경우는 그 시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때이다(예 : 그 아이들과 잘 지내려고 노력함). 감정

의 내면화 전략은 피해 아동 자신의 감정을 내면으로 돌려 반응하는 것으로,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예 : 나 자신이 불쌍하다고 생각함) 스트레스 상황의 원인을 모두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것(예 : 내가 뭔가 괴롭힘을 당할 일을 했다고 나 자신을 탓함) 등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감정의 표출화 전략은 스트레스 상황으로 인한 부정적 감정들을 그 상황과 관련이 없는 다른 대상이나 사물에게 치환하여 외부로 표출시키려는 시도이다(예 :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뭔가를 때림).

2) 학년별과 성별에 따른 대처전략 유형의 차이

학년에 따른 대처전략 유형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일원변량분석의 결과는 <표 2>에 나타나 있다. 성인 지지찾기 전략은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F=17.99, p<.001), Scheffe 검증 결과 3학년과 6학년, 4학년과 5, 6학년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3학년 아동이 6학년 아동에 비해 또 4학년 아동이 5, 6학년 아동에 비해 성인 지지찾기 전략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성인 지지찾기 전략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감소함을 알 수 있다. 반면, 또래 지지찾기 전략의 경우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대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감정의 내면화 전략에서의 학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F=12.64, p<.001), Scheffe 사후 검증 결과 3학년과 5, 6학년 간에 나타났다. 즉 5, 6학년 아동이 3학년 아동에 비하여 감정의 내면화 전략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감정의 표출화 전략에서는 학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 문제해결 전략의 경우에도 학년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F=11.48, p<.001), Scheffe 검증 결과 3학년과 4, 5, 6학년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3학년에 비해 4, 5, 6학년 아동의 경우 긍정적 문제해결 전략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정적 문제해결 전략은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는데(F=5.84, p<.01), Scheffe 검증 결과 4학년과 5, 6학년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5, 6학년 아동이 4학년 아동에 비해 부정적 문제해결 전략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인지적 거리두기 전략은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F=3.29, p<.05), Scheffe 검증 결과 3학년 아동과 6학년 아동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6학년 아동이 3학년 아동에 비해 인지적 거리두기

〈표 2〉 학년에 따른 대처전략 유형의 차이

	3학년(n=79)		4학년(n=80)		5학년(n=90)		6학년(n=92)		F
	M	SD	M	SD	M	SD	M	SD	
인지적 거리두기	2.00	1.12	2.16	1.25	2.25	1.23	2.50	1.21	3.288*
성인 지지찾기	3.04	1.19	3.51	1.20	2.60	1.21	2.41	1.19	17.993***
또래 지지찾기	2.67	1.03	2.89	124	2.86	1.11	3.07	1.03	2.411
부정적 문제해결	2.67	1.24	2.47	1.28	3.09	1.17	2.95	1.08	5.837**
긍정적 문제해결	3.02	.97	3.42	.98	3.57	.85	3.67	.70	11.481***
감정의 내면화	1.67	1.12	2.14	1.25	2.50	1.35	2.60	1.11	12.643***
감정의 표출화	1.99	1.21	2.24	1.21	2.33	1.31	2.17	.98	1.576

*p<.05 **p<.01 ***p<.001

〈표 3〉 성별에 따른 대처전략 유형의 차이

	남자 아동 (n=180)		여자 아동 (n=161)		t
	M	SD	M	SD	
인지적 거리두기	2.40	1.27	2.07	1.13	2.857**
성인 지지찾기	2.19	1.09	3.59	1.02	-13.840***
또래 지지찾기	2.36	1.04	3.43	.89	-11.425***
부정적 문제해결	2.97	1.22	2.63	1.18	2.914**
긍정적 문제해결	3.38	.90	3.49	.92	-1.291
감정의 내면화	2.22	1.29	2.28	1.23	-.475
감정의 표출화	2.50	1.38	1.85	.80	5.893***

**p<.01 ***p<.001

전략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높음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성별에 따른 대처전략 유형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t검증 결과는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감정의 표출화(t=5.89, p<.001), 부정적 문제해결(t=-2.91, p<.01), 인지적 거리두기(t=2.86, p<.01)는 남자 아동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성인 지지찾기(t=-13.84, p<.001)와 또래 지지찾기(t=-11.43, p<.001)는 여자 아동의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자 아동은 감정의 표출화, 부정적 문제해결, 인지적 거리두기 전략을, 여자 아동은 성인 및 또래에 대한 사회적 지지찾기 전략을 사용해 또래집단괴롭힘에 대처하는 경향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3) 또래집단괴롭힘 피해 경험 점수에 따른 대처전략 유형의 차이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을 사용하여 또래집단괴롭힘 피해 경험 점수와 대처전략 유형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전체적으로 또래집단괴롭힘 피해 경험 점수는 감정의 내면화(r=.15, p<.01) 및 부정적 문제해결(r=.14, p<.01)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아동이 피해 경험이 많을수록 감정의 내면화 전략과 부정적 문제해결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집단괴롭힘 피해 경험 점수는 성인 및 또래 지지찾기와 부적 상관(각각 r=-.10, r=-.12, p<.05)을 보여 아동이 피해 경험이 많을수록 성인 및 또래 지지찾기 전략을 적게 사용함을 나타냈다. 이를 학년별로 살펴보면, 고학년의 경우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5학년의 경우, 집단괴롭힘 피해 경험 점수는 부정적 문제해결(r=.24, p<.05)과 감정의 내면화(r=.20, p<.05)와 정적 상관을 보였고, 성인 지지찾기(r=-.20, p<.05)와는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6학년의 경우, 집단괴롭힘 피해 경험 점수는 부정적 문제해

〈표 4〉 또래집단괴롭힘 피해 경험 점수와 대처전략 유형과의 관계

			인지적 거리두기	성인 지지찾기	또래 지지찾기	부정적 문제해결	긍정적 문제해결	감정의 내면화	감정의 표출화
또래집단괴롭힘		전 체	.060	-.098*	-.117*	.142**	-.007	.146**	.049
	학년	3학년(n=79)	.187	-.079	-.074	.089	-.104	.139	-.072
		4학년(n=80)	.037	.010	-.128	.018	.146	.131	.083
		5학년(n=90)	.021	-.197*	-.182	.235*	-.052	.200*	.098
		6학년(n=92)	.040	-.100	-.060	.220*	-.088	.145	.078
	성별	남자아동(n=180)	-.005	.113	.046	.118	.042	.151*	.021
		여자아동(n=161)	.098	-.172*	-.179**	.130	-.040	.152*	-.017

*p<.05 **p<.01

〈표 5〉 대처전략 유형과 외로움과의 관계

		인지적 거리두기	성인 지지찾기	또래 지지찾기	부정적 문제해결	긍정적 문제해결	감정의 내면화	감정의 표출화
외로움	전 체	.014	-.099*	-.175**	.097*	-.062	.096*	.016
	학년 3학년(n=79)	.123	-.174	-.268**	-.049	-.134	.083	-.111
	학년 4학년(n=80)	-.006	.018	-.186*	.093	.107	.061	.052
	학년 5학년(n=90)	.025	-.177	-.204*	.187*	-.112	.186*	.066
	학년 6학년(n=92)	-.008	-.099	-.079	.170	-.165	.193*	.096
	성별 남자아동(n=180)	-.062	.077	-.020	.080	.032	.072	-.028
	성별 여자아동(n=161)	.066	-.153*	-.265**	.079	-.145*	.132	-.010

*p<.05 **p<.01

결(r=.22, p<.05)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한편 성별로 살펴보면, 남녀 아동의 경우 모두 집단괴롭힘 피해 경험 점수가 감정의 내면화(남 : r=.15, p<.05; 여 : r=.15, p<.05)와 정적 상관을 보인다는 점에서 일치하였으나, 여자 아동의 경우에 피해 경험 점수가 성인 지지찾기(r=-.17, p<.05) 및 또래 지지찾기(r=-.18, p<.01)와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여자 아동의 경우 집단괴롭힘 피해 경험이 많을수록 성인 및 또래로부터의 사회적 지지찾기 전략을 잘 사용하지 않음을 가리킨다.

3. 대처전략 유형과 외로움과의 관계

각 대처전략 유형과 피해 아동이 느끼는 외로움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5>. 전체적으로 성인 및 또래를 통한 사회적 지지찾기 전략과 외로움은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각각 r=-.10, p<.05, r=-.18, p<.01). 이는 성인 및 또래 지지찾기 전략을 잘 사용하지 않는 피해 아동의 경우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감정의 내면화(r=.10, p<.05)와 부정적 문제해결(r=.10, p<.05)은 외로움과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즉, 피해 아동이 감정의 내면화 전략이나 부정적 문제해결 전략을 많이 사용할수록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학년별로 살펴보았을 때, 3학년과 4학년의 경우 또래 지지찾기 전략과 외로움은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각각 r=-.27, p<.01, r=-.19, p<.05). 5학년은 또래 지지찾기와(r=-.20, p<.05) 외로움은 부적 상관을, 부정적 문제해결(r=.19, p<.05), 감정의 내면화(r=.19, p<.05)와 외로움은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6학년의 경우, 감정의 내면화와 외로움이 정적 상관을 보였다(r=.19, p<.05). 즉, 3, 4, 5학년 아동은 또래 지지찾기 전략으로 대처할 때 외로움을 덜 느끼며 5, 6학년 아동들은 감정의 내면화 전략으로 대처할 때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자 아동의 경우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나, 여자 아동의 경우에 성인 및 또래 지지찾기 전략과(각각 r=-.15, p<.05, r=-.27, p<.01) 긍정적 문제해결 전략이(r=-.15, p<.05) 외로움과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여자 아동의 경우 성인 및 또래로부터의 지지를 찾는 전략이나 긍정적 문제해결 전략을 많이 사용할수록 외로움을 덜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Ⅳ. 논의 및 결론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또래집단괴롭힘 현상이 학령기 아동들의 사회심리적 발달을 저해한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관심은 또래집단괴롭힘의 실태를 파악하거나 또래집단괴롭힘의 가해 및 피해 아동의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정작 또래집단괴롭힘이라는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했을 때 아동 자신이 그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여 대처하는 가에 관한 연구들은 최근 수행된 소수에 불과하다(김정민, 2004a, 2004b; Kochenderfer-Ladd & Skinner, 200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또래집단괴롭힘이라는 특정 스트레스에 대해 대처하는 피해 아동의 다양한 전략 유형들을 조사하고, 이러한 전략 유형들이 피해 아동의 연령에 따라 어떠한 발달적 특징을 나타내며, 피해 아동의 성 및 피해 경험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또 대처전략 유형에 따라 피해 아동이 느끼는 외로움이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를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또래집단괴롭힘에 대처하는 피해 아동들의 전략 유형은 연구결과에서 제시한 대로 크게 일곱 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일곱 개의 대처전략 유형들은 Causey와 Dubow(1992)의 대처전략들을 기초로 하고 있으나, 사회적 지지찾기 전략이 대상에 따라 성인 지지찾기와 또래 지지찾기 전략으로 구분이 되었고, 문제해결 전략이 긍정적 문제해결과 부정적 문제해결 전략으로 나뉘어졌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선행연구(Kochenderfer-Ladd & Skinner, 2002)에 비해 본 연구는 초등학교 저학년을 포함하는 다양한 연령층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수행되었으므로 각 연령의 사회·인지적 발달 특성에 따라 대처전략 유형이 세분화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둘째, 또래집단괴롭힘에 대한 피해 아동의 대처전략 유형들은 연령에 따라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학년 아동의 경우 고학년 아동에 비해 성인 지지찾기 전략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성인 지지찾기 전략이 감소함을 알 수 있다. 반면 또래 지지찾기 전략의 경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전반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아동의 사회적 관계 형성이 부모나 교사 등 성인과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것이 점차 또래관계로 옮겨지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고학년 아동이 저학년 아동에 비해 문제해결 전략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문제해결 전략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긍정적 문제해결 전략의 경우에 뚜렷이 나타났는데, 이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스트레스 상황을 이해하는 아동의 인지적 측면의 발달과 더불어 아동 자신이 주도적으로 문제에 대처하려는 성향(Erikson, 1963)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또래집단괴롭힘에 대한 피해 아동의 대처전략 유형들은 성별에 따라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집단괴롭힘 피해 상황에서 여자 아동의 경우, 남자 아동에 비해 성인 및 또래 지지찾기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여자 아동이 남자 아동에 비해 친밀한 관계 형성에 관심을 더 기울이며(Paquette & Underwood, 1999),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타인과 나누는 것이 사회적으로 격려되는 경향이 있다(Maccoby & Jacklin, 1974)는 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 즉 남자 아동의 경우 또래 간의 갈등을 타인이나 외부의 도움 없이 혼자

힘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기대된다. 남자 아동이 사회적 지지를 요청하는 것은 또래들 간에도 사회적으로 무능력하거나 정서적으로 지나치게 의존적인 것으로 비춰지는 경향이 있다(Chung & Asher, 1996). 한편 또래집단괴롭힘 상황에서 남자 아동의 경우 여자 아동에 비해 감정의 표출화 전략과 부정적 문제해결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 이는 상호관계에서 여자 아동에 비해 남자 아동의 공격적 성향과 적극적인 대응 방식이 사회적인 허용을 얻기에 더 용이하며 부모의 양육태도에서도 격려되는 경향이 있다(Bishop, Spence, & Mcdonald, 2003)는 사실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남자 아동이 여자 아동보다 분노의 감정을 더 자주 드러낸다는 선행연구 결과(Fabes & Eisenberg, 1992)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넷째, 또래집단괴롭힘 피해 아동은 피해 경험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문제해결 전략과 감정의 내면화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반면, 성인 및 또래 지지찾기 전략을 적게 사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지속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적절히 통제하는데 실패할 확률이 높으므로 자신감이 저하되고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로 돌리는 경향이 높다는 Aldwin (1994)의 주장과 일치하는 것으로, 아동이 반복되는 집단괴롭힘으로 인한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 경미한 스트레스 상황에 처한 아동에 비해 감정의 내면화 전략을 사용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속적인 집단괴롭힘의 피해 대상이 되어온 아동의 경우, 아동이 처한 스트레스 상황은 아동 자신의 노력만으로 쉽게 변하기 어려우므로 긍정적 문제해결 전략은 실패하기 쉽다. 더욱이 지속적인 집단괴롭힘 피해 아동은 또래 간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고(Perry, Willard, & Perry, 1990), 또래나 성인 사이에 지지를 얻는 것이 어려우므로 (Hodges 등, 1999; Hoover 등, 1992), 성인 및 또래 지지찾기 전략을 사용하는 데에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들은 또래 간 흔히 일어나는 일반적인 갈등 상황에서 지나치게 수동적이거나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등 부적절한 대처를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Perry, Perry, & Kennedy, 1992; Schwartz, Proctor & Chien, 2001), 또래집단괴롭힘이라는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이러한 감정의 내면화 전략이나 부정적 문제해결 전략을 사용하는 경향이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추정된다.

다섯째, 또래집단괴롭힘에 노출된 피해 아동들이 모두 심리적 장애를 겪는 것은 아니다. 어떤 아동들은 다른 아동들에 비해 또래집단괴롭힘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것처럼 보인다 (Hoover, Oliver, Hazler, 1992). 연구 결과, 또래집단괴롭힘의 피해 아동은 성인과 또래를 통한 사회적 지지찾기 전략을 사용하지 않을수록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피해 아동이 다른 또래 아동과 상호 우정의 관계를 가진 경우 지속적인 또래집단괴롭힘으로부터 완충효과를 얻는 것처럼 보인다(Browning, Cohen & Warman, 2003)는 보고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피해 아동이 부정적 문제해결 전략과 감정의 내면화 전략을 많이 사용할수록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또래집단괴롭힘의 상황에서 피해 아동이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긍정적인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이 부적응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임을 암시한다. 부모나 교사 등 성인으로부터의 지지는 아동 초기의 사회적 관계 형성의 핵심적 요소이며, 특히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아동의 사회적 네트워크의 반경이 또래관계로 인해 확대되면서 또래 간의 사회적 관계에서 오는 지

지는 아동의 적응에 커다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문제해결을 하려는 시도들과 혼자 걱정하기, 자기 연민 등에 초점을 맞추는 내면화 전략은 피해 아동의 외로움을 부추기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내면화 전략과 같은 회피 유형이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 돌려 체념하고 자기가 처한 상황이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부적응의 위험에 빠지기 쉽다는 점에 근거한 것이다(Fields & Prinz, 1997). 뿐만 아니라, 내면화 전략은 피해 아동을 분명한 외적 대응이 없는 약한 존재 또는 공격 받기 쉬운 대상으로 부각시키므로 또래집단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스트레스 극복에 관한 선행연구들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개인이 그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며, 공격적인 행위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또는 그가 경험하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등에 따라 부적응이 일어날 위험성이 달라진다는 것이다(Fields & Prinz, 1997; Graham & Juvonen, 2001; Kochenderfer & Ladd, 1997; Lazarus & Folkman, 1984; Smith, Shu & Madsen, 2001).

이상의 논의를 근거로 하여 본 연구의 의의는 첫째, 또래집단괴롭힘 현상의 실태 파악이나 피해 및 가해 아동의 표면적인 특징을 기술하는 것을 넘어서서, 피해 아동 자신이 또래집단괴롭힘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처하는 지에 초점을 둔 새로운 사회인지적 접근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특정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아동의 사회인지적 해석이 아동의 대처행동에 밀접한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인지적 접근방식은 또래집단괴롭힘에 대한 새로운 연구방향으로서 국내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처음 수행된 김정민(2004a, 2004b)의 연구들에 이어 피해 아동의 대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 요인들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둘째, 또래집단괴롭힘에 관한 대다수의 선행연구들이 주로 청소년기, 특히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치우쳐 있는 것을 볼 때, 본 연구는 다양한 연령층의 초등학교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여, 처음으로 대처전략 유형의 발달적 변화를 연구하고자 하며 나아가 아동기에서 청소년기에 이르는 또래집단괴롭힘에 대한 보다 균형 잡힌 이해를 도모하는 이점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또래집단괴롭힘 상황이라는 특정 상황에서 피해 아동의 대처행동과 외로움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부적응의 문제를 조명해 보고자 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의 결과들을 기초로 또래집단괴롭힘의 피해 아동 및 또래관계 형성에서 갈등의 문제를 가진 아동의 치료와 후속 지지 프로그램 구성, 또래집단괴롭힘의 피해에 대한 부적응 예방 또는 완화 프로그램 개발 등 실제 학교를 비롯한 또래 상호작용이 있는 교육현장에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본 연구는 아동이 또래집단괴롭힘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에 따라 어떤 대처전략을 결정하는가 하는 인지적 판단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아동의 자기보고식 척도를 연구 도구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실제 또래집단괴롭힘 상황에서의 피해 아동의 대처행동을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연구의 제한점으로 볼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실제 또래집단괴롭힘 상황에서의 아동의 대처행동을 관찰하거나, 또래 지명 척도 등의 연구방법을 함께 사용하는 후속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참 고 문 헌

김교헌 · 왕소정(2000). 학부모와 교사가 지각하는 집단따돌림 현상의 원인과 대책 및 배척 받는 아동의 심리적 특성. *학생생활연구, 27,* 85-107.

김용태 · 박한샘(1997). 청소년 친구 따돌림의 실태 조사. *따돌리는 아이들, 따돌림 당하는 아이들.* 서울 : 청소년 대화의 광장.

김정민(2004a). 또래집단괴롭힘 상황에서 초등학교 아동들의 대처전략 유형에 관한 연구. *상담학연구, 5(3),* 793-807.

김정민(2004b). 학교 내에서의 또래집단괴롭힘 피해 경험과 아동의 대처전략 유형 및 외로움과의 관계. *교육학연구, 42(2),* 565-589.

이춘재 · 곽금주(2000). 집단따돌림 경험 유형에 따른 자기개념과 사회적 지지.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13,* 65-79.

최윤자 · 김아영(2003). 집단따돌림 행동과 자아개념 및 귀인성향과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17(1),* 149-166.

최윤정 · 진혜경 · 김종원(2001). 학령기 집단따돌림 피해 및 가해아동의 인격성향에 관한 연구. *소아청소년정신의학, 12(1),* 94-102.

최은숙 · 채준호(2000). 집단따돌림 가해, 피해 경향과 관련된 심리적 요인에 관한 및 연구. *인간이해, 21,* 109-137.

Aldwin, C. M.(1994). *Stress, coping, and development : An integrative perspective.* New York : Guilford Press.

Alsaker, F. D., & Valkanover, S.(2001). Early diagnosis and prevention of victimization in kindergarten. In J. Juvonen & S. Graham(Eds.), *Peer harassment in school : The plight of the vulnerable and victimized*(pp. 175-195). New York : Guilford Press.

Bishop, G., Spence S. H., & Mcdonald C.(2003). Can parents and teachers provide a reliable and valid report of behavioral inhibition? *Child Development, 74(6),* 1899-1917.

Boulton, M. J., & Underwood, K.(1992). Bully/victim problem among middle school children.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62,* 73-87.

Browning, C., Cohen, R., & Warman, D. M.(2003). Peer social competence and the stability of victimization, *Child Study Journal*, *33(2)*, 73-90.

Camodeca, M., Goossens, F. A., Terwogt, M. M., & Schuengel, C.(2002). Bullying and victimization among school-aged children : Stability and links to proactive and reactive aggression. *Social Development, 11,* 332-345.

Carver, C. S., Scheier, M. E., & Weintraub, J., K.(1989). Assessing coping strategies : A theoretically based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 267-283.

Cassidy, J., & Asher, S. R.(1992). Loneliness and peer relations in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3,* 350-365.

Causey, D. L., & Dubow, E. F.(1992). Development of a self-report coping measure for elementary school children.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1,* 47-59.

Chung, T., & Asher, S. R.(1996). Children's goals and strategies in peer conflict situations. *Merrill-Palmer Quarterly*, *42,* 125-147.

Crick, N. R.(1996). The role of overt, relational aggression, and prosocial behavior in the prediction of children's future soci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7,* 2317-2327.

Egan S. K., & Perry, D. G.(1998). Does low self-regard invite victimization? *Development Psychology, 34,* 299-309.

Endler, N. S., & Parker, J. D. A.(1990).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coping : A critical evalu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844-854.

Erikson, E. H.(1963).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 Norton.

Fabes, R. A., & Eisenberg, N.(1992). Young children's

coping with interpersonal anger. *Child Development, 63,* 116-128.

Fields, L., & Prinz, R. J.(1997). Coping and adjustment during childhood and adolescence. *Clinical Psychology Review*, *17,* 937-976.

Grills, A. E., & Ollendick, T. H.(2002). Peer victimization, global self-worth, and anxiety in middle school children.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31,* 59-68.

Hawker, D. S. J., & Boulton, M. J.(2000). Twenty years' research on peer victimization and psychosocial maladjustment : A meta-analytic review of cross-sectional studie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and Allied Disciplines*, *41,* 441-455.

Hoover, J. H., Oliver, R., & Hazler, R. J.(1002). Bullying : Perception of adolescent victims in the Midwestern USA.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13,* 5-16.

Juvonen, J., & Graham, S.(2001). *Peer harassment in school : the plight of the vulnerable and victimized.* New York : Guilford Press.

Kochenderfer, B. J., & Ladd, G. W.(1996a). Peer victimization : Cause or consequence of children's school adjustment difficulties? *Child Development*, *67,* 1305-1317.

Kochenderfer, B. J., & Ladd, G. W.(1996b). Peer victimization : Manifestations and relations to school adjustment in kindergarte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34,* 267-283.

Kochenderfer-Ladd, B., & Skinner, K.(2002). Children's copying strategies : Moderators of the effects of peer victimization? *Development Psychology, 38,* 267-278.

Kochenderfer-Ladd, B., & Wardrop, J. L.(2001). Chronicity and instability of children's peer victimization experiences as predictors of loneliness and social satisfaction trajectories. *Child Development*, *72,* 134-151.

Lazarus, R. S.(1994). The stress and coping paradigm. In J. M. Joffe, G. W. Albee, & L. C. Kelly(Eds.), *Reading in primary prevention of psychopathology* (pp. 131-156). Hanover, NH : University Press of New England.

Maccoby, E., & Jacklin, C.(1974). *The psychology of sex differences.* Stanford, CA : Stanford University Press.

Olweus, D.(1991). Bully/victim problems among schoolchildren : Basic facts and effects of a school based intervention program. In D. Pepler & K. Rubin(Eds.), *The development and treatment of childhood aggression*(pp. 411-448). Hillside, NJ : Erlbaum.

Olweus, D.(1992). Victimization by peers : Antecedents and long-term outcomes. In K. H. Rubin & J. B. Asendorf(Eds.), *Social withdrawal, inhibition, and shyness in childhood*(pp. 315-341). Hillsdale, NJ : Erlbaum.

Olweus, D.(1993). *Bullying at school : What we know and what we can do.* Oxford : Blackwell.

Olweus, D.(1995). Annotation : Bullying at school : Basic facts and effects of a school based intervention program.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5,* 1171-1190.

Paquette, J. A., Underwood, M. K.(1999). Gender differences in young adolescents' experiences of peer victimization : Social and physical aggression. *Merrill-Palmer Quarterly, 45(2),* 242-266.

Perry, D. G., Hodges, E. V. E., & Egan, S. K.(2001). Determinants of chronic victimization by peers : A review and a new model of family influence. In J. Juvonen & S. Graham(Eds.), *Peer harassment in school : The plight of the vulnerable and victimized*(pp. 73-104). New York : Guilford Press.

Perry, D. G., Perry, L. C., & Kennedy, E.(1992). Conflicted and development of antisocial behavior. In C. U. Shantz & W. W. Hartup(Eds.), *Conflict in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pp. 301-

329).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Perry, D. G., Williard, J. C., & Perry, L. C.(1990). Peers' perceptions of the consequences that victimized children provide aggressors. *Child Development, 61,* 1310-1325.

Reid, K.(1989). Bullying and persistent school absenteeism. In D. P. Tattum & D. A. Lane(Eds.). *Bullying in schools*(pp. 89-94). London : Trentham Books.

Roth, S., & Cohen, L. J.(1986). Approach, avoidance, and coping with stress. *American Psychologist, 41*, 813-819.

Schwartz, D., Proctor, L. J., & Chien, D. H.(2001). The aggressive victim of bullying : Emotional and behavioral dysregulation as a pathway to victimization by peers. In J. Juvonen & S. Graham(Eds.), *Peer harassment in school : The plight of the vulnerable and victimized*(pp. 147-174). New York : Guilford Press.

Storch, E. A., Krain, A. L., Kovacs, A. H., & Barlas, M. E.(2002). The relationship of communication beliefs and abilities to peer victimization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Child Study Journal, 32(4),* 231-240.

Warman, D. M., & Cohen, R.(2000). Stability of aggressive behavior and children's peer relationships. *Aggressive Behavior, 26,* 277-290.

2004년 12월 31일 투고 : 2005년 2월 24일 채택